

시끌벅적 e-스타



박용수의 파스칼리



'운전은 초보, 성질은 람보' 재치만점 초보 문구

운전자들이면 누구나 다 겪는 '초보운전'의 아찔한 기억. 큰 맘먹고 도로에 나서지만 뒀뒀 달리는 차만 봐도 긴장된다. 차선 한번 바꾸려는 데도 무난한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다.

'운전은 초보, 성질은 람보', '무면허 전'의 아찔한 기억. 큰 맘먹고 도로에 나서지만 뒀뒀 달리는 차만 봐도 긴장된다. 차선 한번 바꾸려는 데도 무난한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다.

부모님이 그리울 때 듣는 'Roses For Mama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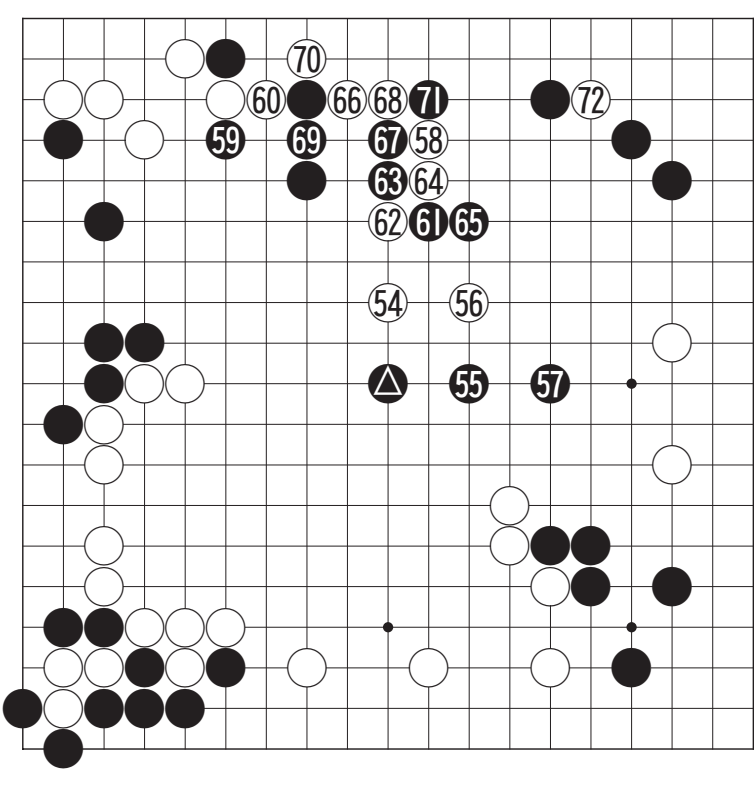


기다리던 2주간의 휴가, 친한 친구와 플로리다의 바닷가로 가서 파티도 열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. 차에 짐을 가득 채워 실은 뒤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.

차를 돌려 꽃집으로 달려갔다. "아까 부탁한 꽃다발을 보냈나요?" 다행히 주인은 아직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.

니, 엄마가 빨간 장미를 좋아하는데 오늘이 일 년 동안 만나지 못한 엄마의 생일이라는 것이었다. 엄마한테 늘 장미꽃을 사 드리겠다고 약속했고, 올해는 다섯 송이는 사 드리고 싶는데 동전 한 닢으로는 다섯 송이 장미를 살 수 없다고 해서 울고 있다는 것이었다.

생각을 하게 한다.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생각난다. 한 분만이라도 살아 계시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으니 그 또한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.



전남도지사께 전국어마회기전

흑 ▲로 삭감해 온 장면으로 지켜야 할지 공격해야 할지 백의 선택이 어려운 곳이다. 박성근 7단은 장고 끝에 백 54로 다소 공격이 힘든 지점을 선택했다.

강력한 태클 4보(54~72)

나서 61로 강력하게 백돌을 갈라갔는데 59는 60과 교환되어 손해수가 되고 있다. 59로 불인 이상 61로는 먼저 '참고도'의 흑 1을 선수해 두

바둑소식

드라마 '올인'의 실제 주인공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차민수 4단이 7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2기 지지옥션배 여류대 시니어 연승대회전 본선 3국에서 하호정 3단을 상대로 199수 끝에 불계승을 거뒀다.

리빙 센스 아토피 관리 ③
■욕조 목욕은 10분 이내
피부가 건조할 때 욕조 목욕이 도움이 되지만 10분 이상 욕조 목욕을 하면 욕조 목욕을 하다 보면 수분 손실이 심해질 수 있다.

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5월 8일(음 4월 4일 戊申)
36년생 마음은 편하지만 상황은 어려워 질수도 있다. 48년생 모든 단계를 총 동원하지만 해결은 미루어진다. 60년생 다가올 일을 먼저 예상하라. 72년생 갑자기 일이 이루어진다.

더마플라스트 밴드
www.cafe.daum.net/sajoo114 ☎11-632-6121
제품구입문의: (주)호원약품 062-383-5883

굿모닝 잉글리쉬 <1155>
Where can I wash my hands?
어디에서 손을 씻을 수 있죠?
A: You're dirty.
B: I know. I've been cleaning out the garage. Where can I wash my hands?
A: Go to the bathroom in my bedroom.
B: Thanks.

오하오우 니혼고 <1155>
どこか わるいんですか。
어디 안 좋으세요?
A: あ、どこか わるいんですか。
B: ええ、風邪(かぜ)氣味(きみ)で頭(あたま)が痛(いた)いです。
A: じゃ、薬(くすり)を飲(の)んでぐすりやすんだ方(ほう)がいいですね。
B: ええ、せつかくですが、どうもすみませんね。

니하오 쑹구위 <132>
我去市场买了吃的。
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샀다
A: 你去哪儿了?
ni qu nǎr le
B: 我去市场买了吃的。
wǒ qù shìchǎng mǎi le cài cǎi
A: 你买什么了?
nǐ mǎi shénme le
B: 我买了鱼, 肉, 和青菜。
wǒ mǎi le yú ròu hé qīngcǎi

한자 이야기 <772>
朝令暮改(조령모개)
아침 조, 명령령, 저물모, 고칠개
조령모개는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저녁에 고친다는 뜻으로 법령이나 하는 일이 일관성이 없이 자주 바뀔을 비유한다.